

지역 소식통

고창군, 주요 관광지

외국인관광객 영상 홍보

고창읍성과 학원농장, 구시포 해수욕장 등 고창지역 대표관광지 홍보영상이 외국어로 제작돼 해외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 14개 시군과 공동협정서를 체결하고 '일상 속 코로나(위드코로나) 전방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기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 국가 대상 영상홍보와 송출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북 특별한 관광지 56선을 소재로, 고창군에선 학원농장, 고창읍성, 구시포해수욕장, 운곡탐사트습지 등 대표관광지 영상콘텐츠(15초~10분사이 짧은 영상)를 한국어와 외국어 영상(영어, 중국어 자막)으로 제작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벼 감축재배

희망농가 신청 접수

부안군은 올해 벼를 재배한 논에 논공 등 타작물 재배 유도 및 쌀수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추진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중 희망경영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벼 재배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작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논타작물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농가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면적 제한은 없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을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배정하고 지역농협에는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재선 도전

“지속 가능 정읍 발전 기반 구축”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진섭(56) 정읍시장이 6일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7기에 추진해 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한 정읍 발전의 가속화와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시정 운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읍 발전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선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년 희망의 씨앗을 뿌려 시민과 공직자의 꿈과 정상으로 꽃을 피우고 탄탄한 열매를 맺었다”며 ▲정읍역사상 첫 1조원 시대 실현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관광콘텐츠와 기반시설 확충 ▲휴식과 치유, 힐링의 연수도시 기반 구축 ▲알짜배기 기업 유치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 등 민선 7기 핵심 성과를 꼽았다.

유 시장은 특히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소하고 차질 없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관광콘텐츠 확충에 주력,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실례를 꼽았다.

유 시장이 대표적으로 꼽은 사업은 내장산과 문화관광, 용산호 삼각관광벨트 구축, 관련해 유 시장은 “내장산 문화관광 복합놀이시설인 천사 히어 로즈는 이미 전곡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고 범퍼보트는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용산호 미르생 분수도 당당한 위용을 드러낸 가운데 주변 여러 사업

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읍시인의 열원이었던 내장호와 내장산 관광호텔 부지 일부가 지난해 12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도 거둬,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 중에 있다고 밝혔다.

휴식과 치유, 힐링의 연수도시 기반 구축도 성과로 들었다.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을 비롯한 연수 시설과 대형 호텔 유치 성과와 함께 추진 상황, 기대효과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들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농축산물 소비와 연수원 인력 채용 등을 통한 연간 400여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하지만 이처럼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특성상 4년 임기 중 2년여는 전임 시장의 정책과 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민선 7기 정책과 사업을 완성하게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선 출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정읍 기적의 도서관, 국비 1700만원 확보 4월부터 6개월간 창의적 문학 활동 경험 제공

정읍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에 작가가 상주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국비 1,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적의 도서관은 공

개채용 절차를 통해 현직 작가인 오혜원 작가를 상주 작가로 최종 선발했다. 기적의 도서관은 오 작가와 함께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만드는 계절 그림책’, 자연 친화적 독서 욕구에서 책 읽기, ‘말쓰기 상담소’ 등 읽고 쓰고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역과 관련된 역사와 인물 등의 탐구를 문학적 요소와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상주 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와 독자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며 “지역민의 창작활동을 도와 독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혜원 작가는 2016년 한우리문학상 블랙리스트 등단 생일을 축하하는 녀석을 출간했다. 지역 내 작은 도서관에서 책 만들기 등 지역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 2일까지 받는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21년도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불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 납부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인 5월2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민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업종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 직권연장과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인 4월27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

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우 21.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로도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고창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손잡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사업을 추진한다.

“군민의 목소리 새겨들으며”

고창군-지속가능발전협, 환경·경제·사회 조화로운 발전 나서

고창군이 고창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손잡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사업을 추진한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전국의 지자체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련법 시행 전

사전대응 차원으로 이뤄졌다. 고창군 관련부서와 협의회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고창군 특성에 맞는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은 “군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으며 고창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를 세우고, 군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카카오톡 채널 ‘우물판다’ 이모티콘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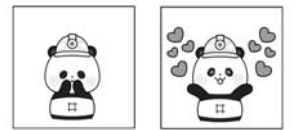
6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정읍시가 지역 내 기업과의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녕 ▲화이팅 ▲부탁해 ▲축하해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과 상황을 ‘우물판다’ 캐릭터로 디자인해 제작했다.

이모티콘을 받으려면 카카오톡 앱 실행 후, 검색창에서 ‘정읍시 기업지원 알림 북’을 입력해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우물판다’ 캐릭터는 정읍(井邑)의 우물정(井)과 부의 상징인 판다의 합성어로 정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과 직원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제작됐다.

우물판다의 16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은 기업지원 소식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무료 배포 이벤트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정읍시 기업지원 알림 북’에 가입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한 만큼, 이모티콘 무료 배포 기간동안 많은 기업인이 가입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기업지원 알림 북’은 정부 기관이나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알려주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정보제공 서비스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